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국무회의 의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정부양곡 수급 전망과 공공비축 매입 물량과 매입 가격 등을 포함한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 부족 시를 대비하여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쌀 비축 물량*은 40만 톤이며, 이 중 가루쌀 물량은 3.5만 톤 수준이다.

* 매입 물량(만 톤): ('22) 45 → ('23) 40 → ('24) 45 → ('25) 43 → ('26p) 40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kg 조곡 기준)당 6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정액제(3만 원)로 운영해 왔던 중간정산금을 2024년에 4만 원으로 인상한 데에 이어, 올해 6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최근 산지쌀값 동향,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이번 인상을 통해 농가의 수확기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는 친환경 벼에 대해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고품질 쌀 생산을 확산하고, 적정 시비를 통한 환경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 무료급식 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방식) 친환경벼 중 단백질 함량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단백질 함량 수치가 낮은 상위 30%의 농가에 등급별 가산금(매입가의 5%p)을 인센티브로 지급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다수화 품종*을 제외하고 각 시·군에서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하며,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경우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 공공비축 매입 제한 다수확 품종: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

아울러, 올해 양곡연도 말(2026년 10월 말) 예상되는 정부관리양곡 중 쌀 재고는 71만 톤으로,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및 판매, 대여곡 반납 등을 고려하여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 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하여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며,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김동현 (044-201-1810)
			서기관	정정희 (044-201-1815)
			사무관	류성훈 (044-201-1829)
			사무관	한재석 (044-201-1820)